

## 중년기 남성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및 일터 영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영숙<sup>1</sup>, 정추영<sup>2</sup>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Workplace Spirituality of Quality of Life on Middle Aged-male

Young-sook Seo<sup>1</sup>, Chu-young Jeong<sup>2\*</sup>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Received October 21, 2016; Received October 26, 2016; Accepted October 31, 2016)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ed factors of quality of life (QOL) among middle-aged male.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44 middle aged male.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2016,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SW (SPSS) 21.0 program, and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QOL of this study was 2.99/5. The significant correlates of QOL were family support ( $\beta=.21$ ,  $p=.024$ ), health status ( $\beta=.24$ ,  $p=.003$ ), workplace spirituality ( $\beta=.55$ ,  $p<.001$ ),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55.9% of variance in QOL.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family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re an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QOL of the middle-aged ma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family support and workplace spirituality for promoting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le.

**Key Words :** Family support, Health status, Middle aged, Quality of life, Workplace spirituality.

---

\*Corresponding author : [jcy0902@dhc.ac.kr](mailto:jcy0902@dhc.ac.k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성이 79세, 여성이 85.5세로 향후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sup>. 한편 건강한 삶을 반영하는 지표인 건강수명은 2012년 남성이 68.8세, 여성이 72.5세로 보고됨에 따라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10년 정도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평균수명이 양적측면에서 생활환경이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문제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sup>2)</sup>.

특히 인생주기의 중년기는 40세의 성인기에서 64세까지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로 일생의 1/2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평균수명과 함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년기는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 인생주기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sup>3)</sup>.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장기적 경제 불황과 더불어 기업들의 구조조정, 조직퇴직, 부도, 실직 등의 사회적 구조변화로 우리사회에서 생산활동의 주된 세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실정이다<sup>4)5)</sup>. 특히 중년남성은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이 중년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sup>6)</sup>,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안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한 만족정도로,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3)</sup>.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sup>5)</sup>, 불안과 우울, 절망 등의 정서적 요인<sup>6)7)</sup>, 수면시간, 수면의 질 등의 생리적 요인<sup>7)8)</sup> 등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의 중년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정서적 요인, 생리적 요인 등에 따른 단면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중년기 남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인간관계 중 하나로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들<sup>9)10)</sup>에서는 직장 내 상호작용과 일에 대한 내면적 의미부여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일터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터영성은 일과 조직의 환경 속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의식상태이다<sup>11)</sup>. 현대인은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일과 관련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일터환경과 일에 대한 자신의 의미에 따라 삶의 질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sup>9)</sup>. 반면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로서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 관리의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일터영성이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일터영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 U시에 소재하는 500인 이상 규모의 3개 회사에 근무하는 중년기 남성으로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 D시, U시의 회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부서의 허락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 취지와 목적,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일터영성과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effect size) .15, 검정력( $1-\beta$ ) .95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14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의미하며<sup>12)13)</sup>,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도구를 Min, Lee,

Kim, Suh와 Kim<sup>14)</sup>이 번안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신체적 10문항, 심리적 4문항, 사회관계적 6문항과 환경적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Min 등<sup>14)</sup>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 2.3.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sup>15)</sup>, 본 연구에서는 Cobb<sup>12)</sup>가 개발한 도구를 Kang<sup>13)</sup>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이었다.

####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sup>16)</sup>, 본 연구에서는 Park (1985)<sup>16)</sup>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이었다.

#### 2.3.4. 일터영성

일터영성은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의식상태를 의미하며<sup>11)</sup>, 본 연구에

서는 Roh와 Suh<sup>11)</sup>가 개발한 일터영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 5문항, 일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5문항,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4문항,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터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oh와 Suh<sup>11)</sup>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영성, 삶의 질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일터영성,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51~55세’가 46.5%, 학력은 ‘고졸’이 81.2%, 종교는 ‘무교’가 66.0%, 결혼상태는 ‘기혼’ 80.6%, 자녀유무는 ‘있다’ 89.6%, 음주유무는 ‘한다’ 70.1%, 흡연유무는 ‘하지 않는다’가 53.5%로 나타났다. 규칙적 운동유무는 ‘한다’ 62.5%, 가정의 수입 만족도는 ‘보통이다’ 40.3%,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 49.3%, 총 근무기간은 ‘20년 이하’가 42.2%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4)

Variables	Categories	M (SD) or n (%)
		51.05 (13.2)
Age (year)	≤ 45	34 (23.6)
	46-50	41 (28.5)
	51-55	67 (46.5)
	≥ 56	2 (1.4)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17 (81.2)
	≥ College	27 (18.8)
Religion	Have	49 (34.0)
	Have not	95 (66.0)
Marriage state	Have	116 (80.6)
	Have not(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28 (19.4)
Children	Have	129 (89.6)
	Have not	15 (10.4)
Drinking	Yes	101 (70.1)
	No	43 (29.9)
Smoking	Yes	63 (17.3)
	No	81 (53.5)
Regular exercise	Do	90 (62.5)
	Don't	54 (37.5)
Sufficient degree of household income	Lack	54 (37.5)
	Appropriate	58 (40.3)
	Enough	32 (22.2)
Health status	High	31 (21.5)
	Middle	71 (49.3)
	Low	42 (29.2)
Duration since job (year)	≤ 20	104 (42.2)
	≥ 21	40 (27.8)

#### 3.2.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영성과 삶의 질의 정도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영성과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3.22점/5점, 사회적 지지는 2.94점/5점, 일터영성은 4.26점/7점, 삶의 질은 2.99점/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of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nd Quality of life (N=144)

Variables	M (SD)	Potential Range
Quality of life	2.99 (4.35)	1-5
Family support	3.22 (4.63)	1-5
Social support	2.94 (5.80)	1-5
Workplace spirituality	4.26 (6.39)	1-7

3.3. 대상자의 삶의 질과 주요 요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은 가족지지 ( $r=.46, p<.001$ ), 사회적지지( $r=.54, p<.001$ ), 일터영성( $r=.77, p<.001$ ) 간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일터영성은 가족지지( $r=.30, p=.004$ ), 사회적 지지( $r=.55, p<.001$ ) 간의 양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r=.64, p<.001$ )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44)

Variables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Quality of life
	r (p)	r (p)	r (p)
Family support	.64 (<.001)	.30 (.004)	.46 (<.001)
Social support		.55 (<.001)	.54 (<.001)
Workplace spirituality			.77 (<.001)

3.4.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영성과 일반적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총 근무기간, 연령, 운동 유무, 가정의 수입 만족도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반적 특성 변인 중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과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의 조건을 검정한 결과, 변인들 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54~.94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1.86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았으며 등분산검정은 잔차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관련요인은 일터영성( $\beta=.55, p<.001$ ), 건강상태( $\beta=.24, p=.003$ ), 가족지지( $\beta=.21, p=.024$ ), 가정의 수입 만족도( $\beta=.21, p=.001$ )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55.9% 설명하였다( $F=24.59, p<.001$ )(Table 4).

Table 4.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N=144)

Variables	$\beta$	t	p
Workplace spirituality	.55	6.95	<.001
Health status	.24	3.12	.003
Family support	.21	2.30	.024

Adjusted R<sup>2</sup>=.559 F=24.59, p<.001

4. 고찰

간호의 패러다임은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은 현대간호의 주된 관심사로<sup>6)</sup>, 간호학문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신체적, 심리사회적, 일터영성 등으로 구성하여 알아보고 확인된 관련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은 건강상태와 가정 수입만족도, 가족지지, 일터영성이었고, 이들 변인은 삶의 질을 55.9%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이 개인의 건강과 가족, 직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반영하며, 아울러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은 내외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가족지지

와 직장에 대한 의미를 향상할 수 있는 간호중재는 삶의 질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결과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은 일터영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sup>11)16)</sup>에서도 근로자의 일터영성과 삶의 질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일터영성은 자신이 일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직장생활의 안녕감에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sup>17)</sup>.

특히 중년기 남성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으며, 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노력하게 된다<sup>11)</sup>. 이러한 결과에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각적인 중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일터영성에 따라 삶의 질이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일터영성을 고려한 삶의 질간의 관련성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었는데,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sup>2)8)</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으로 작용하므로<sup>13)</sup>,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sup>18)</sup>.

특히 중년기는 성인기에서 노년기의 과도기로 젊은 시절의 신체적 기능의 감퇴를 체감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신체적 기능저하와 건강문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사료된다. 한편 중년기 남성은 중년기 여성의 폐경처럼 신체적 변화가 드라마틱(dramatic)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간호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가족지지이었는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Kang<sup>5)</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년기 남성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보고되었으며<sup>6)</sup>, 자신보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 자녀의 성공 등<sup>8)19)21)</sup>에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년기 남성의 경우,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가 분가와 부모님의 사망 등을 통해 친구와 동료의 친밀한 관계에서 점점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을 포함한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네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가정의 수입만족도이었는데, 가정의 수입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와 일관 된다<sup>8)</sup>. 특히 중년기 남성의 경우 가정경제 수입이 가족의 부양에 더 나은 생활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기여하므로, 가정의 수입만족도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관련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정 수입만족도, 가족지지, 일터영성 등으로 설명되었다.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터영성과 가족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지지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 환자의 삶의 질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가정 수입만족도의 요인만으로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기에는 부족한 점과 일부 도시의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 정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정 수입만족도, 가족지지, 일터영성 등으로 삶의 질을 55.9%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정 수입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일터영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에서는 일과 가족, 주관적 건강상태 요인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결과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2015.
2. Lee YJ, Choi GJ. The effect of Korean adult's mental health on QOL(Quality Of Life)-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3;11:1:321-327.
3. Han GH, Kim JH, Kim KM. Supportive and conflictual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d in Korea.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3;23:2:155-170.
4. Han KL, Chung YK, Lee J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climacteric symptoms of midlife men.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2;13:3:514-522.
5. Kang YH.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2:344-353.
6. Han SJ, Kwon MS, Yoon OS.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of middle aged women and 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012;19:2:1183-194.
7. Kim HS, Yu KZ.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male baby boom generation men.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13;24:4:461-470.
8. Lee YW. A study of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4: 539-549.
9. Kolodinsky WR, Giacalone AR, Jurkiewicz LC. Workplace values and outcomes: Exploring personal, organizational, and interactive workplace spiritu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08; 81:465-480.
10. Petchsawang P, Duchon D. Measuring workplace spirituality in an Asian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2009;12:4:459-468.
11. Roh SC, Suh YW. The five-factor model of workplace spirituality: A conceptualization and scal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4;27:2: 419-447.
12.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e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1976;38:5:300-314.
13. Kang HS.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nsei University, Seoul, 1984.
14. Min SK, Lee CI, Kim KI, et al.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0; 39:3:571-579.
15. Kang KJ, Lee EJ.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of middle age women with degenerative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 2000;7:1:5-24.
16. Park JW.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17. Suk JW, Koh MS. Development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1:99-108.
  18. Kim JI, Kim YD. Construct dimensions & measure for workplace spirituality: Literature review for development of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2011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1;51-71.
  19. Chang HK. The study of fatigue, perceived health status, marital adjustment and stress in middle aged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07;19:3: 413-421.
  20. Lee HY, Park JY.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rried middle-aged men's family resilience upon the stress cop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1;16:23:169-192.
  21. Kim MJ, Kim KB.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3;19:2:150-158.